

한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 공모

30일 마감... 온실가스 감축·전기차 보급 활성화 기대

한국전력이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3차 공모를 진행한다.

한전은 오는 30일까지 2주간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한전은 총 9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공동주택 단지 4000여 곳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충전인프라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시행한 1차 공모에선 공동주택 단지 233곳을 최종 구축 대상으로 선정하고 충전기 714기(급속 237기,완속 477기)를 시공 중이다.

11월에 이뤄진 2차 공모에선 공동주택 단지 420곳을 설치 대상으로 선정하고 충전기 1198기(급속 339기,완속 859기)를 설치기로 구축협약을 체결

했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공모 요령은 지난 1.2차 때와 동일하며,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한전은 이번 3차 공모 이후에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신청하기 위해선 '입주민간 충전인프라 설치 합의', '충전시설과 부속 시설물 설치부지 제공',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 배정' 등의 설치 조건을 사전에 충족시켜야 한다.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의 경우 300가구 이상~1500가구 미만은 1기를, 1500가구 이상은 2기가 설치된다.

'완속'은 500가구 미만은 2기, 1000가구 미만은 3기, 1500가구 미만은 4기, 2000가구 미만은 5기, 2000가구 이상은 6기까지 설치된다.

충전요금은 아파트 공용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부과된다.

사용자가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충전하고 충전요금을 현장에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변압기 용량이 부족해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아파트와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설치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재용 기자

전북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우수'

2년연속 대상 수상

전북농협이 농기계은행사업 평가에서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전북농협의 농기계은행 사업은 70개 참여농협에서 209명의 직영운전자와 2,572명의 책임운영자를 운용해 농작업대행 면적은 25만7,000ha로 전년 18만9,000ha 대비 36%를 성장시켰다.

또한 신규농기계공급 356대와 방제실적 3만3ha를 실시해 전북의 논벼 재배면적이 12만1,000ha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는 평가다.

연도대상 농작업대행실적에서 익산농협이 1위, 선운산농협이 2위, 신대인농협이 4위, 김제농협이 8위, 하서농협이 8위의 실적을 거뒀으며, 신규농기계공급에서 선운산농협이 3위, 칠보농협이 5위,김제농협이 9위를 달성했다. 특히 익산농협의 강성기씨와 송기택 씨가 책임운영자상을 수상했다.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은 영농편익 제공과 고가의 농기계 구입관련 부채문제를 해결하고 경운, 정지, 육묘, 이앙(파종), 방제, 수확, 수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농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고자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19일 전북본부 회의실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와 전북지역 농·생명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은 전북본부-국가식품클러스터, 업무협약 체결

농·생명 산업발전 협력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19일 전북본부 회의실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와 전북지역 농·생명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전북지역 농·생명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기로

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농·생명산업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농협 지역사랑봉사단 연탄나눔 봉사활동 펼쳐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지난 16일 전주 진북동 일대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전북은행 임직원 및 신입행원 40여명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탄 6,000장을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배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전북은행 신입행원 30여명은 심시일반 7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자녀가 7명인 저소득가정에서 꼭 필요로 했던 세탁기를 구입해 지원해 주위에 훈훈하게 했다.

전북은행 최강성 노조위원장은 "연말연시 지속적으로 지역공헌사업을 펼쳐 도민과 함께 발전하는 향토은행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농협 다사랑회-농협노조 복지시설 찾아 봉사활동 실시

전북농협 여성책임자 모임 다사랑회와 농협노조 전북본부는 지난 17일 익산시 월성동 작은 자매의 집과 완주 봉동 다애공동체 복지시설을 방문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복지시설 청소 및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전북농협 다사랑회는 회원들이 자발적 기금을 조성해 매년 정기적으로 사랑의 쌀 나눔, 김장 김치 나눔, 목욕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농협 노조의 경우 농촌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연탄나눔 행사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꾸준히 돕고 있다.

다사랑회와 농협 노조는 "앞으로도 사랑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농진청, 토양 속 살균제 분해하는 미생물 발견

'스핑고모나스 C8-2' 균주... 유용미생물 보호·환경오염 예방

토양 속에 남아있는 살균제를 24시간 안에 분해하는 미생물을 발견했다.

농촌진흥청은 트리아졸 계통에 속하는 살균제인 디페노코나졸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토양에서 최초로 발견하고 '스핑고모나스 C8-2' 균주로 이름을 붙여 특허출원했다.

디페노코나졸은 각종 과수 및 밭작물에 발생하는 흰가루병, 잿빛곰팡이병, 낙엽병 등을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로, 다른 약제에 비해 토양에 남아있는 기간이 길고 여파류에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험에서 액체 배지에 디페노코나졸 100 mg/L를 넣은 다음 '스핑고모나스 C8-2' 균주를 처리한 결과, 24시간 내에 살균제를 완전히 분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해산물들은 토양 속에 있는 세균이나 곰팡이에 대해 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발견한 '스핑고모나스 C8-2' 균주 및 이 균주를 이용한 토양 속 살균제 제거 방법에 대해 특허출원(출원번호 10-2016-0151840)했으며, 관련 연구결과는 한국농약과학회지 12월호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발견한 '스핑고모나스 C8-2' 균주를 활용하면 토양 속에 남아 있는 살균제 성분을 단기간에 친환경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토양 속 살균제 독성을 없애

유용 미생물을 보호하면서 하천 환경오염 및 어류 등 수중 생물 폐사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살균제가 많이 투입되는 작목에 적용해 토양에 남아있는 살균제를 분해함으로써 그 농도를 기준 이하로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인재형 농업연구사는 "앞으로 '스핑고모나스 C8-2' 균주를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산업체 등에 기술 이전해 농가 현장에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익산국토청, 하천정비사업 '속도'

신탁지구 사업 26일 착공

전북을 대표하는 만경강을 안전하고 깨끗한 명품강으로 바꾸기 위한 하천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익산국토관리청에 따르면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 11개 지구 중 마지막 구간인 신탁지구 사업을 오는

26일 착공한다.

만경강 중류에 위치한 신탁지구는 완주군 삼례읍 하리에서 봉동읍 장기리에 이르는 총연장 10km 구간으로, 2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진행된다.

사업은 고수부지 내 경작지를 생태공간으로 바꾸고, 강을 따라 자전거길과 산책로, 그리고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쉼터 공간 등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고수부지 내 약 1만㎡(축구장 크기)의 공산에 조성될 드론공원엔 드론이용자들의 항공레저 욕구충족 및 전북지역 미래 신산업 발전을 이끌 공간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만경강을 따라 완주, 군산 그리고 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자전거길(약 100km)은 많은 라이더들의 발길을 붙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용 기자



부안으로 마실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扶來滿福